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신진에스엠(138070)

소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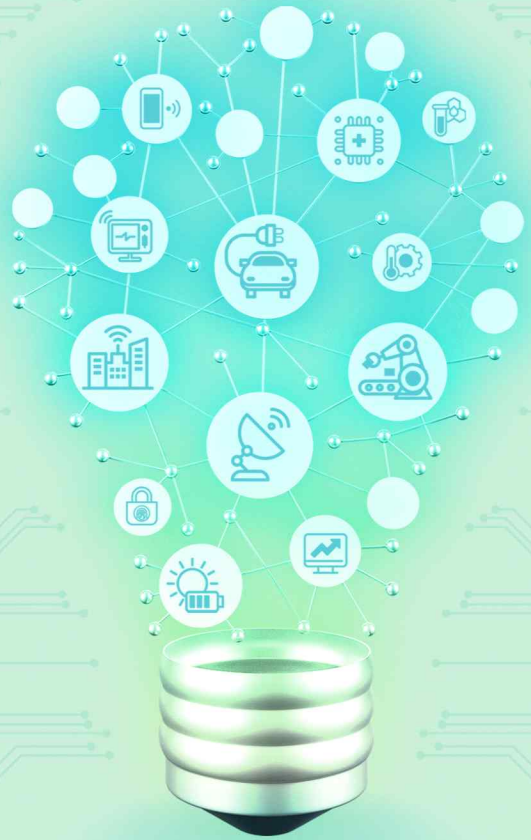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지혜련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신진에스엠(138070)

표준 플레이트 전문기업, 금형용 플레이트 시장 공략 및 B2B 통합수주시스템 오픈

기업정보(2020/08/03 기준)

대표자	김은식/김은주
설립일자	2001년 07월 18일
상장일자	2011년 11월 28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금속 제품 제조업
주요제품	표준 플레이트, 가공 정밀 설비

시세정보(2020/08/03 기준)

현재가(원)	5,27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473
발행주식수	8,972,183
52주 최고가(원)	5,990
52주 최저가(원)	2,855
외국인지분율	0.39%
주요주주	김은식, 김은주

■ 국내 최초 플레이트 산업 표준화에 성공한 규격 소재 전문기업

신진에스엠은 2001년 국내 최초 표준 플레이트를 제작한 국내 굴지의 규격 소재 전문기업이다. 총 4,200여종의 규격별 표준 플레이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계산업 전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생산 자동화 라인 구축, 공정 축소를 통한 원가절감,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2011년 코스닥 상장하였다. 2009년 일본 SHINJIN-SM JAPAN을 설립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태국 SHINJIN-SM THAILAND를 설립하는 등 사업 영역을 국외로 확장해왔다.

■ 독보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제품의 생산

동사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및 전문 기술인력 보유를 통해 신규 제품 및 가공 설비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표준 플레이트 정밀가공 설비에 대한 다수의 지식재산권 확보(2020년 7월 기준 특허 국내 45건, 해외 5건, 출원 25건 등)로 독자적 기술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금형용 플레이트 시장 공략에 나서고자 2014년 포스코 합작 법인 신진에스코를 설립하였다. 포스코와 공동으로 개발한 고속절단 가공 기술의 적용으로 금형용 플레이트 품질 향상 및 가공 비용 절감을 통해 저가 수입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 B2B 통합수주시스템 개발 및 오픈

최근 자동화 설비 투자를 통해 업계 최초로 고객의 주문 즉시 가공, 배송 등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B2B 통합수주시스템을 개발하여 ‘바로신진’이라는 웹사이트를 오픈하였다. 온라인,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제품주문, 가격조회, 배송정보 등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고객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569.8	14.5	54.7	9.6	50.3	8.8	6.8	4.8	39.3	568.0	7,517.0	12.4	0.9
2018	562.4	(1.3)	40.8	7.3	31.9	5.7	4.3	2.9	51.2	361.0	7,745.4	15.0	0.7
2019	517.8	(7.9)	29.9	5.8	24.3	4.7	3.2	2.1	60.6	275.0	7,926.4	19.7	0.7



기업경쟁력

국내 1위 표준 플레이트 소재 전문기업

- 후판 절단가공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국내 1위 표준 플레이트 전문기업
- 소형·대형 플레이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함으로써 매출처 다변화 가능
- 워천기술 특허 보유로 경쟁사 시장진입 및 시장 확대에 적극적 대응

핵심 경쟁력 빅3

- 절단가공 기술
 - 40여 건의 핵심특허 기반의 자체 정밀 가공 설비로 경쟁 우위성 확보
- 생산공정
 - 혁신적 공정축소 및 로봇자동화 적용으로 생산시간 단축 및 원가절감 실현
- 단납기 시스템
 - 4,200여종의 다수량 재고 보유, B2B주문시스템, 자차 물류, 4만여 곳 고정거래처 확보 등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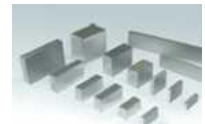
핵심기술

- 정밀 가공설비 원천특허 보유 및 생산라인 적용
 - 원형 톱날 고속절단기, 금속 판재 절개홈 이격 장치 등 핵심특허 보유
 - 고속절단기, 슬라브절단기, 평면·측면·사면 가공기 등
- 지속적 연구개발 매진
 - 연속가공 벨트 구동 양면가공기, 양측면 가공기, 롤러 구동 평탄기 등
 - 업계 최초 다관절 로봇을 이용한 금속 판재 가공 자동화 라인 구축

적용제품



일반강&탄소강 표준 플레이트



알루미늄 표준 플레이트



금형용 플레이트



정밀 가공 설비

시장경쟁력

국내 주요 기업

- 국내 1위 표준 플레이트 기업
 - 해당 업계는 동사 외 10개 미만의 표준 플레이트 전문업체와 다수의 비규격 임가공 업체들로 구성

전략적 영업 역량

- 국내외 판매 네트워크
 - 대리점: 국내 33곳, 해외 4곳
 - 직영점: 국내 4곳, 해외 4곳

최근 변동사항

B2B 통합수주시스템 오픈

- 실시간 운용 웹사이트 오픈
 - 고객 주문즉시 가공, 배송 조회 등 실시간 이용 가능
 - 온라인,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수주 가능

신규 사업 추진

- 자회사인 신진에스코와 협력
 - 몰드베이스 제작용 금형용 플레이트 사업 진출

I. 기업현황

국내 1위 표준 플레이트 전문기업

신진에스엠은 국내 최초 플레이트 산업 표준화를 도입한 기업으로, 국내 표준 플레이트 시장 1위 선두기업이다.

■ 개요

신진에스엠(이하 동사)은 1991년 신진엔지니어링으로 출발하여 표준 플레이트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2001년 법인 전환하였으며,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본사는 전북 장수에 소재하고 있으며, 장수공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동탄공장, 정남공장, 향남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대리점(직영점 포함), 국내 자회사 및 해외 자회사 2곳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는 표준/금형 플레이트, 정밀 가공 설비 제조로 2020년 7월 기준 총 172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표 1. 기업현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회사명	신진에스엠	창업주	故 김영현
설립일	2001년 07월 18일	대표이사	김은식, 김은주 (각자)
자본금	4,448백만원	임직원 수	172명 (2020년 07월 기준)
발행주식 총수	8,972,183주 (자사주 441,162주)	자회사	신진에스코, 신진재팬, 신진태국
상장일	2011년 11월 22일 (코스닥)	영업망	대리점: 국내 33곳, 해외 4곳
지식재산권 (특허)	국내 45건, 해외 5건, 출원 26건		직영점: 국내 4곳, 해외 4곳

*출처: IR 자료(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주요 관계회사 및 최대주주

동사의 최대주주는 김은식 각자 대표이사로 동사의 지분 21.63%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김은주 각자 대표이사가 지분 13.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주 4.92%를 보유하고 있다.

표 2. 주주현황

		주요주주	지분율(%)
		김은식	21.63
		김은주	13.00
		양순임	9.84
		김홍기	4.50
		자사주	4.92
		기타	46.11
		합계	100.00

*출처: 1분기 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대표이사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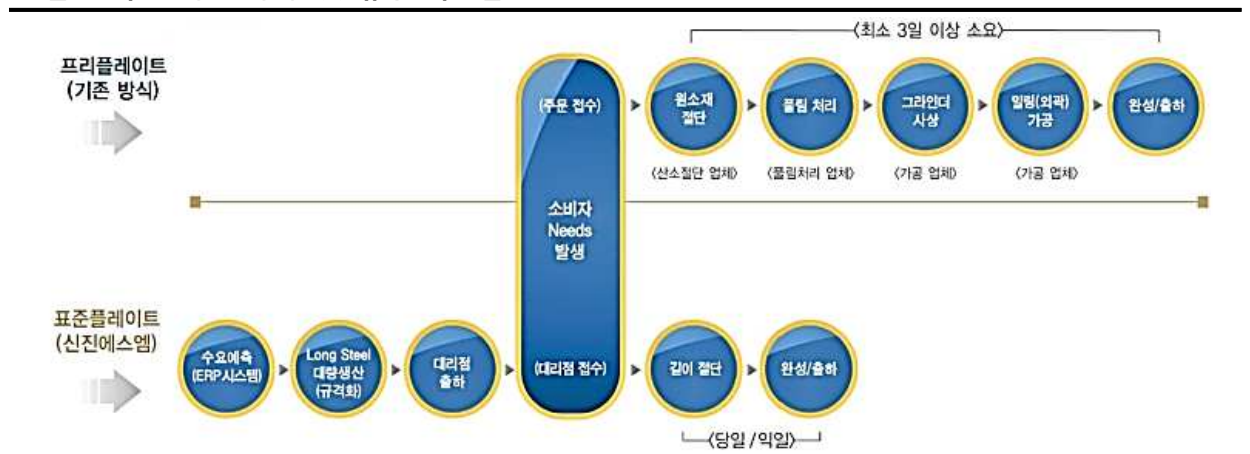
동사는 2018년 12월 김흥기, 김영현 각자 대표이사에 의해 운영되다가, 2019년 3월 김영현 대표이사 부고 이후, 김은식 대표이사가 취임하였다. 2019년 11월 김흥기 대표이사 사임 후, 김은주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현재 김은식, 김은주 대표이사에 의해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은식 대표이사는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시간대학교 경영학 석사(MBA)를 수료하였다. GS건설 플랜트 사업부에서 근무한 뒤, 동사 기획실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김은주 대표이사는 수원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19년 11월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주요 핵심역량

동사는 2001년 국내 최초 플레이트 표준 산업화에 성공하며 규격 소재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플레이트란 기계산업 내 가장 기초적이며,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금속가공물을 말한다. 철강을 다양한 형태로 자르고 가공해야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므로 플레이트는 철강을 철강산업에서 기계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표준 플레이트는 플레이트를 두께, 길이, 폭별로 표준화한 것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로부터 시작된 비즈니스이다. 기존 소형 임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소량 생산하는 플레이트 산업을 원자재 대량구매, 자동화 공정을 통해 대량생산, 단납기 시스템을 통해 사업화시킨 개념으로 적용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공작기계, 자동차 및 일반기계 등 다양하다.

동사의 가공 프로세스는 기존 3일 이상 소요되는 생산방식과 달리 4,200여종의 표준화된 플레이트를 당일 또는 익일 이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기존 소비자 니즈 발생 시점에서 생산에 들어가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니즈 발생 시점에서 즉시 구매가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생산설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45개 대리점의 유통시스템으로 단납기를 실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1. 주요 생산 공정 및 유통 시스템



*출처: IR 자료(2020)

■ 영업 전략

동사는 국내외 조직적 판매 유통망 구축을 통해 플레이트 사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왔다. 2020년 1분기 보고서 기준 국내 대리점 33곳, 해외 대리점 4곳, 국내 직영점 4곳, 해외 직영점 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본사 영업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

그림 3. 동사 국내외 판매 네트워크



*출처: IR 자료(2020)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주요 제품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선행연구팀과 제품개발팀으로 조직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2005년 1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기업부설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공인 인증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팀별 전문화된 다수의 기술인력(선행연구팀: 연구소장 1명, 수석연구원 1명, 선임연구원 2명, 전임연구원 1명, 제품개발팀: 연구원 2명)을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

표 4.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

연구과제	연구기관	연구목적	기간
1,300 소폭 자동 길이절단기	신진에스엠	자체 사용	2020.05~
소폭 소형 소재용 자동레벨러	신진에스엠	자체 사용	2020.01~
소폭 소형 소재용 자동절단기	신진에스엠	자체 사용	2020.01~
75T W300 소형절단기	신진에스엠	상품화	2018.07~
톱날 용접, 그라인딩, 연마 설비 개발 및 자동화 개발	신진에스엠	자체 사용	2018.07~
환봉절단기 개발	신진에스엠	상품화	2018.01~
규격품 절단부터 측면, 평면가공 후 완제품까지 자동화라인	신진에스엠	상품화	2017.11~
자동화라인 자동면취 추가	신진에스엠	상품화	2017.03~
신규 폭 1,200 사면가공기	신진에스엠	상품화	2016.09~

*출처: IR 자료(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II. 시장 동향

철강산업 실적 악화, 기계산업 불확실성 증대

동사는 자체 기술개발로 제작된 정밀 가공 설비를 이용하여 기계산업의 기초소재인 표준 플레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방시장인 기계산업 전반에 걸쳐 공급하고 있다.

■ 표준 플레이트 산업

표준 플레이트 산업은 기계산업의 기초적인 부품 소재로써 지속적인 수요가 가능한 산업이며, 제품 품질과 신속한 납기 대응이 해당 업체 간의 경쟁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뛰어나며, 주로 일반기계, 공작기계, 정밀기계 산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표 5. 표준 플레이트 산업 특징

구분	특징
기계산업의 지속적인 수요	- 기계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품 소재로써 지속적인 수요가 가능한 산업임. - 재질과 크기에 상관없이 설비의 능력에 따라 광범위하게 가공할 수 있음. - 가공 설비의 능력이 제품의 경쟁력과 업체의 시장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줌. - 기계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며, 특히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큼. -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기계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높은 기술적/비용적 진입장벽	- 지속적 기술개발로 기술 장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축적된 기술력과 데이터 없이 관련 장비 제작이 어려움. - 관련 설비를 제작하는데 인적/물적 인프라, 부지, 자금, 기술력 등이 필요함.
전방산업으로의 확장 우수성	- 표준 플레이트는 전방산업인 성형 부품 산업의 기초 부품임. - 생산 효율성이 높은 생산 시스템과 유통망 확보로 전방산업으로의 진입이 용이함.

*출처: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

■ 철강산업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및 건설을 비롯한 전 산업에 필요한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규모 경제가 큰 대규모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다. 철강산업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형상 및 품목별로 크게 봉형강류, 판재류, 강관류 및 주단강으로 구분되며, 동사는 주로 판재류(후판) 가공을 통해 표준 플레이트를 생산하고 있다.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와 수출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전체 생산량 및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하반기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 부진의 지속에도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전체 출하량이 상반기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6. 2020년 철강산업 동향

구분		동향
상반기	내수	• 조선산업의 건조량 감소와 자동차 산업의 수요 부진 및 생산 차질, 가전산업의 부진, 공사 지연 및 민간부문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건설투자의 감소, 기계산업의 회복 지연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수출	• COVID-19의 세계적 확산과 고강도 사회격리,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및 제조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감소가 예상됨.
	수입	• 원/달러 환율 상승과 국내 수요 부진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하반기	내수	•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과 완성차 업체들의 국내 생산 회복세, 조선산업의 건조량 증가가 기대되나 내수경기 부진, 주택시장 및 민간부문의 침체와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국내 건설투자의 감소세 확대,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수출	• COVID-19 사태의 진정 시 각국의 경기부양 노력과 자동차를 비롯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공장 재가동,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재개, 중국 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철강재 수요 증가 등으로 상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COVID-19의 장기화 및 재확산 우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재 수요의 구조적 부진,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저유가의 장기화 연간 수출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

▶▶ 중후판 시장 현황

중후판은 철강재를 3mm이상 두께로 열간 압연하고 냉각, 열처리 등을 거쳐 판 형태로 생산한 것이다. 건설, 조선업을 비롯한 주요산업에 필수적인 철강재이며,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를 요하는 장치산업에 해당된다. 또한, 국내외 경제의 성장 및 자동차, 건설, 조선, 기계 등 주요 전방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철강산업의 성장세는 높지 않은 상황에 있다.

2019년 중후판은 내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출 증가로 인해 전체 출하량은 전년대비 3.09% 증가한 9,551천 톤을 기록하였다. 내수는 전방 조선산업의 건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던 기저효과와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 유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0.77% 감소한 7,152천 톤에 그쳤다. 수출은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판매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16.60% 증가한 2,399천 톤을 기록하였다. 생산 역시 수출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41% 증가한 9,526천 톤을 기록하였다.

2020년 1분기 중후판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내수가 부진하며 전체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3.50% 감소한 2,343천 톤을 기록하였다. 내수는 국내 조선산업의 충분한 수주잔량 확보에도 불구하고 COVID-19의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과 선박의 인도 지연 등으로 후판 수요가 부진한 바, 전년동기대비 6.61% 감소한 1,704천 톤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수출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로의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91% 증가한 639천 톤을 기록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생산은 내수 부진으로 인해 2,367천 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수준에 정체되었다.

표 7. 2020년 1분기 중후판 시장 현황



*출처: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

▶▶ 중후판 빅3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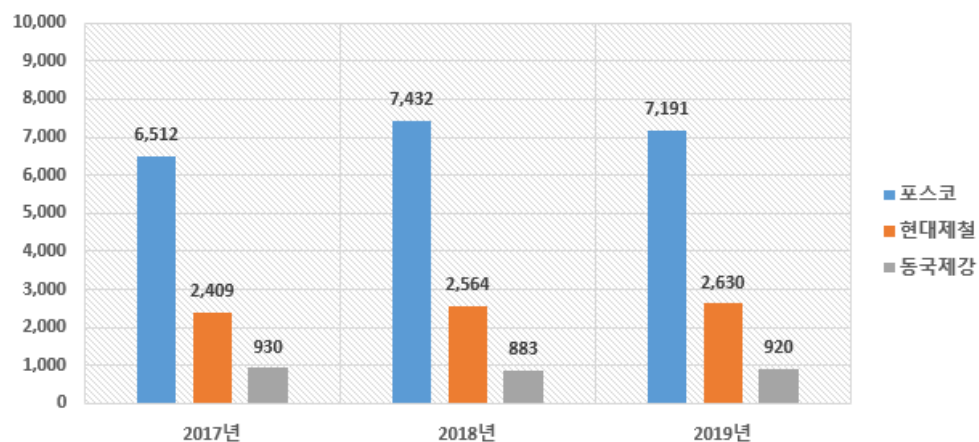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에 따르면, 국내 중후판 시장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빅3가 생산을 전담하는 과점시장이며, 2011년까지 업체들의 신증설 등으로 생산능력이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2012년 동국제강이 포항 1후판 공장을 폐쇄하면서 생산능력이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 현대제철의 3고로가 완공되면서 생산능력은 다시 확대되었다.

2019년 중후판 시장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생산 증가에도 포스코의 생산 감소로 인해 상위 3사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이에 생산실적 기준 점유율은 포스코가 전년대비 하락한 66.95%를 기록하였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각각 24.49%, 8.57%를 기록하였다. 2020년 1분기에는 국내 조선산업의 건조량 감소로 후판 생산 역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며, 각 사별 점유율은 포스코 68.91%, 현대제철 22.67%, 동국제강 8.41%를 기록하였다.

표 8. 2020년 중후판 빅3 생산량 및 증감률

(단위: 천 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생산량	생산량	전년대비 증감률	생산량	전년대비 증감률	생산량
포스코	6,512	7,432	+14.13%	7,191	-3.24%	1,851
현대제철	2,409	2,564	+6.43%	2,630	+2.57%	609
동국제강	930	883	-5.05%	920	+4.19%	226
합계	9,851	10,879	-	10,741	-	2,686



*출처: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

■ 기계산업

기계산업은 산업 생산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제반 산업 설비 제조를 의미한다.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금속 제품 등의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표 9. 기계산업 분류

구분	종류
일반기계	공작기계, 농업용 기계, 건설광산기계
	섬유기계, 화학기계, 플라스틱 가공기계, 산업용 기계
	운반하역기계,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냉동공조기기
	발전기, 전동기, 통신기기, 가전기기
전기전자기계	송배전용기기 등
수송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자전거, 항공기, 조선 등
정밀기계	광학기계, 계측기기, 의료용 장비, 시계 등

*출처: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

▶▶ 기계산업 현황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에 따르면, 2019년 기계 산업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되며 전체 생산량이 전년대비 1.3% 감소한 122,156십억 원을 기록하였다. 내수는 공기가전 시장의 성장에 따른 냉동공조기계 수요 증가와 경제형 농기계의 판매 호조에도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의 설비 투자 감소, 건설시장의 부진 및 신규 착공 관련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기계, 공작기계, 운반기계의 수요가 부진하며 전년대비 3.7% 감소한 94,106십억 원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중국 제조업의 경기 부진, 인도의 인프라/설비 투자 지연 등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한 52,45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0년 상반기 기계산업은 서버와 PC 중심의 반도체 수요 회복, 정부의 발농업기계화 추진 지속 등에도 COVID-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의 부진 및 인프라 투자지연 일부 공장들의 생산 중단,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관련 기계의 수요가 감소하여 위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하반기 기계산업은 건설기계, 공장기계, 농기계 등의 수요가 증가하며, 상반기 대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기계는 각국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과 중국의 COVID-19 확산세 둔화에 따른 건설시장의 회복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공작기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부 수요산업의 투자 증가로 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는 신규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산업과 스마트팜 사업의 본격 추진 등으로 내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 위축 및 COVID-19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국내 건설투자의 여전한 부진, 자동차 산업의 생산 감소 등으로 회복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기계산업 통계월보(2020년 7월호)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계산업 생산,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7%, 19.1% 감소하였다. 생산은 일반기계(-2.3%), 전기전자기계(-15.4%), 수송기계(-30.3%), 정밀기계(15.5%), 금속제품(-19.0%) 모두 감소하였다. 출하 또한 일반기계(-6.9%), 전기전자기계(-16.2%), 수송기계(-28.8%), 정밀기계(-16.3%), 금속제품(-16.2%) 모두 감소하였다.

표 10. 기계산업 생산/출하/재고 동향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2020년 3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1~5월
생산	-1.4(%)	-3.5(%)	-0.3(%)	5.1(%)	-8.6(%)	-17.7(%)	-5.8(%)
출하	-0.2(%)	-2.5(%)	-2.5(%)	3.0(%)	-12.2(%)	-19.1(%)	-8.1(%)
재고	4.0(%)	3.9(%)	9.3(%)	9.3(%)	9.0(%)	4.7(%)	4.7(%)

*출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2020년 5월 기계산업 수출은 117.9억 달러(-31.2%), 수입은 94.5억 달러(-3.6%), 무역수지는 23.4억 달러 흑자를 시현하였다. 생산은 일반기계(-24.2%), 전기전자기계(-21.0%), 수송기계(-42.9%), 정밀기계(-18.0%), 금속제품(-27.2%) 모두 감소하였다. 출하 또한 일반기계(-1.9%), 전기전자기계(-7.6%), 수송기계(-8.1%), 정밀기계(-20.1%), 금속제품(-34.0%) 모두 감소하였다.

표 11. 기계산업 수출/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2020년 3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1~5월
수출	206,633 -7.3(%)	203,266 -1.6(%)	48,776 -0.6(%)	17,305 -2.5(%)	12,984 -30.6(%)	11,791 -31.2(%)	73,552 -13.4(%)
수입	117,063 1.1(%)	108,302 -7.5(%)	26,239 2.7(%)	10,171 6.8(%)	9,645 -4.9(%)	9,447 -3.6(%)	45,330 -0.4(%)
무역수지	89,569	94,965	22,538	7,134	3,340	2,344	28,221

*출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Ⅲ. 기술분석

핵심 경쟁력 빅3를 확보하고 있는 신진에스엠

동사는 차별화된 규격 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절단가공 기술, 생산공정, 단기 납기 시스템 빅3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 표준 플레이트

표준 플레이트는 기계장치 산업의 기초 소재로 전기,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학, 플랜트 설비 외 각종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금속제품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동사는 주로 일반강, 탄소강, 특수강,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표준 플레이트를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 일반강&탄소강 표준 플레이트

일반강&탄소강 표준 플레이트 생산 강종은 SS400, S45C가 있으며, 원형톱날 원판 절단 > 평탄공정 > 자동 밀링 공정 > 원형톱날 길이 절단 > 출하 순으로 생산하고 있다.

표 12. 일반강&탄소강 표준 플레이트 생산 공정도

① 원형톱날 원판 절단	② 평탄 공정	③ 자동 밀링 공정
		
- 열처리 불필요 - 규격별 폭 절단	- 원활한 밀링가공 가능 - 롤러 타입(자동 배출 시스템) - 철판 평탄도 보증	- 무인 자동화 생산라인 4면 동시 가공(평면/측면) - 양두밀링 가공
④ 원형톱날 길이 절단	⑤ 완성	
		
- 주문제품 규격별 길이 절단 2차가공 불필요 (특서/실용신안 등록)	일반강&탄소강 표준 플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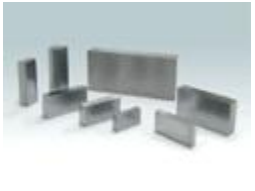
*출처: IR 자료(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특수강 표준 플레이트

특수강 표준 플레이트 생산 강종으로 SK3, SKD11, SKD61이 있으며, 특수강 원자재 투입 > 폭 종류별 절단 > 평면가공 > 양 측면 가공 > 주문제품 규격별 절단 > 출하 순으로 생산하고 있다.

표 13. 특수강 표준 플레이트 생산 공정도

① 특수강 원자재 투입	② 폭 종류별 절단	③ 평면가공
		
④ 양 측면 가공	⑤ 주문제품 규격별 절단	⑥ 완성
		

*출처: IR 자료(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스테인리스강 표준 플레이트

스테인리스강 표준 플레이트 생산 강종으로 SUS303, SUS304가 있으며, 스테인리스강 원자재 투입 > 폭 종류별 절단 > 양 측면 가공 > 평면가공 > 주문제품 규격별 절단 > 출하 순으로 생산하고 있다.

표 14. 스테인리스강 표준 플레이트 생산 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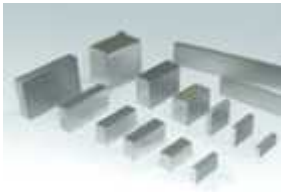
① 스테인리스강 원자재 투입	② 폭 종류별 절단	③ 양 측면 가공
		
④ 평면가공	⑤ 주문제품 규격별 절단	⑥ 완성
		

*출처: IR 자료(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알루미늄 표준 플레이트

알루미늄 표준 플레이트 생산 강종으로 AL6061이 있으며, 알루미늄 원자재 투입 > 폭 종류별 절단 > 양 측면 가공 > 주문제품 규격별 절단 > 출하 순으로 생산하고 있다.

표 15. 알루미늄 표준 플레이트 생산 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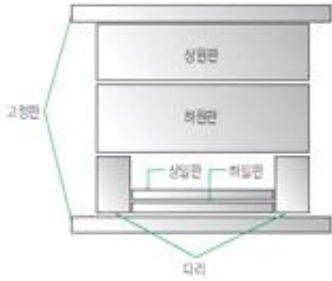
① 알루미늄 원자재 투입	② 폭 종류별 절단	③ 양 측면 가공
		
④ 주문제품 규격별 절단	⑤ 완성	
		

*출처: IR 자료(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금형용 플레이트

금형용 플레이트는 동사의 자회사인 신진에스코가 공급하는 S54C 절단 소재를 중소형 타입 모든 규격으로 밀링 가공하여 몰드베이스 제작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세트 단위 및 판 단위 발주 모두 가능하며, 특히 로봇 자동 생산에 의한 균일한 치수 공차 및 우수한 품질로 대량생산할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납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표 16. 금형용 플레이트 구조 및 특징

금형용 플레이트 MB45	
	
• 세트 단위 및 판 단위 발주 모두 가능 • SC의 기본 형태 외 판별로 추가 발주 가능 • 몰드베이스의 다양한 형태 모두 적용 가능 • 로봇 자동 생산에 의한 균일한 치수 공차 및 우수한 품질 • 재고 운영규격 지속 확대 예정	

*출처: IR 자료(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정밀 가공 설비

동사는 표준 플레이트 제조를 위한 정밀 가공 설비에 대한 기술 개발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다수의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확보를 통해 독자적 기술 차별성을 구축하고 있다.

표 17. 주요 연구과제

연구과제	내용
설비 보완 및 신제품 연구개발	- Burr 제거기(면취기), 오일미스트 등 신규제품 개발 - 설비 제작 기술 응용 - 절삭가공 설비(태핑머신, 드릴링머신, 환봉절단기, 형상가공기 등) 제작 확대 - 유공압 및 전기제어 기술을 이용한 다축 로봇 개발
금속판재 절단 및 절삭가공의 전 공정 무인 자동화를 위한 연구개발	- PLC/자동 제어 적용 로봇제어 연구개발 - 최적의 자동화 라인 구축을 위한 설비 구조 설계 - 저에너지/고효율의 소재 이송장치 연구개발 - 배출 칩들의 효과적인 배출장치 연구개발
설비기능 개선과 최적의 가공 조건을 위한 연구개발	- 공구 공급업체와의 절삭공구 공동 연구개발 - 주 가공품 외의 금속 재질 절삭 조건 데이터화 - 제품의 정밀 측정 능력 개선 - 파트별 조립구조 단순화 및 기능 개선 연구개발 등
친환경 설비제작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 절삭유 연구개발 - 공구수명 연장에 대한 연구개발 - 집진시스템 및 설비커버 개선 - 공정시간 및 소재 이송거리 개선 - 공구 재활용을 위한 설비 및 공정 연구 - 칩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연구 등

*출처: 1분기 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표 18. 최신 지식재산권(특허) 등록 현황

특허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제10-1943162호	철근 연결용 커플링
제10-1897780호	절단가공시스템
제10-1877928호	절단가공시스템
제10-1844532호	절단가공시스템
제10-1778362호	절단스크랩 분리수거장치
제10-1746950호	소재 로딩장치
제10-1733915호	철근 연결용 커플링
제10-1733914호	철근 연결용 커플링
제10-1676136호	회전톱 크리닝장치
제10-1648249호	절단 장치
제10-1639917호	프레임 지지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절단기
제10-1639913호	소재 이송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절단기
제10-1639899호	이송장치 및 이를 구비하는 절단기
제10-1639896호	절단장치
제10-1630925호	절단 장치 및 절단 방법
제10-1620746호	가이드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절단기
제10-1620742호	클램핑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절단기
제10-1620741호	가이드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절단기
제10-1620733호	동력전달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절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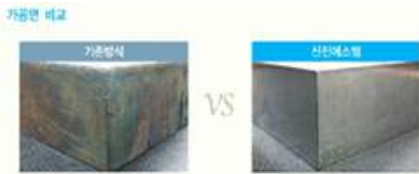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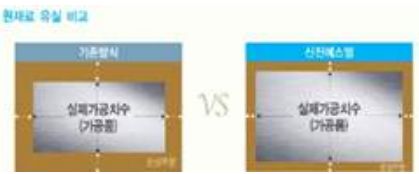
*출처: kipris, NICE평가정보 재구성

■ 핵심 경쟁력

▶▶ 절단가공 기술

동사의 정밀 가공 설비는 기존방식 대비 가공 속도가 빠르고, 절단면이 매끄러워 2차 가공이 필요 없는 특징을 가진다. 원재료 유실 비교 시, 기존 방식대비 원재료 손실이 적고, Hume (흙) 미발생으로 친환경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절단가공 특징

구분	산소 절단(기존방식)	동사 기계 절단가공
절단면		
절단 속도	X (150mm/min)	○ (400mm/min)
비용	○ (7.0천원/톤)	△ (13.7천원/톤)
표면 품질	X (2차가공 필요)	○ (2차가공 불필요)
절단 Loss	△ (절단슬래그)	○ (칩회수)
환경 영향	△ (Hume 발생)	○ (Hume 미발생)
		
추가가공 필요	절단면=가공면	100mm 손실 2mm 손실

*출처: IR 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생산 공정

동사의 정밀 가공 설비는 기존방식과는 달리 한 번에 여러 장을 절단하고, 절단과 동시에 여러 면을 가공하기 때문에 제조공정이 혁신적으로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동사는 독보적인 기술 방식의 절단 공정을 통해 공정을 축소하고, 로봇 자동화를 통해 생산시간을 단축하여 획기적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

표 20. 생산 공정도



*출처: 1분기 보고서(2020)

▶▶ 단납기 시스템

자동화 생산 공정으로 스마트 공장을 지향하고 있어 고품질,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평면가공 시, 공정 당 평균 3~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대 200T까지 중첩 가공이 가능하다. 또한, 표준 플레이트(SS400, S45C, AL6061, SKD11, SKD61, SK3, SUS303, SUS304)를 상시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주/야간 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방식 대비 불필요한 중간 과정의 생략이 가능하므로 단기 납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표 21. 유통 방식



*출처: IR 보고서(2020)

■ SWOT 분석

그림 4. 동사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



▶ (Strengths Point) **규격 생산 자동화라인 구축, 효율적 유통 시스템, 국내외 판매 네트워크 운영**

동사는 국내 최초 플레이트를 표준 사업화 성공한 규격 소재 전문기업으로 차별화된 규격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생산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공정 축소, 원재료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였다. 또한, 자동화 생산 공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납기를 실시하고 있어 확고한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편, 국내외 대리점 37곳, 직영점 8곳 운영을 통해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 (Opportunities Point) **재고 운영 정책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에 영향 없이 안정적 공급이 용이**

현재 철강산업 수요 부진에 따른 원재료 값 상승 등으로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철강업계가 철강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에 수요산업의 경우 원재료(후판)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실적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나, 동사의 경우 재고 운영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비교적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와 직거래를 통해 월평균 후판 1,000톤을 구매하고 있으며, 후판의 경우 4~6개월, 알루미늄의 경우 1개월의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분기 연결기준 239억 원(별도기준 155억 원)의 재고를 축적한 것으로 파악된다.

▶ (Weaknesses Point) **전방산업의 불확실성 증대로 동사의 매출성장은 정체**

표준 플레이트 산업은 전방산업(기계산업)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매출 실적과 연결된다. 2020년 국내 기계산업은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9년 국내 기계산업 생산/수출/수입 모두 하락 폭이 커 기저효과를 고려한 전망이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동사의 매출성장 또한 정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Threats Point) **환경 관련 규제 심화로 환경 친화적 설비 제작에 대한 필요성 증가**

국내외 표준 플레이트 및 정밀 가공 설비 제조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현재 주요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 관련 규제가 심화 되고 있어 저에너지 사용과 저탄소 배출 설비 제조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동사는 에너지 사용과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으며, 소모성 부품들을 줄이기 위한 장치 개발 및 기계 설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IV.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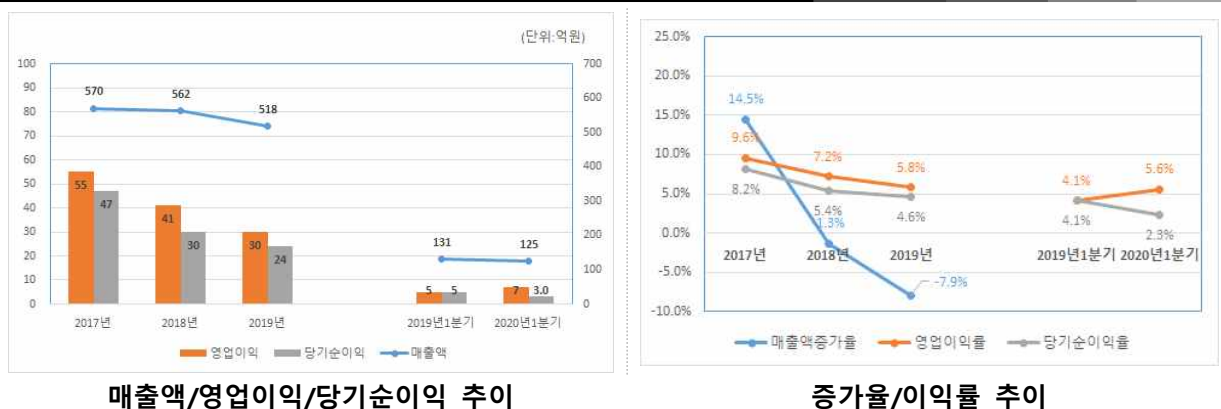
주요 산업의 설비투자 감소 및 공작기계 등의 수요부진으로 매출 감소

동사는 표준 플레이트 부문, 정밀 가공설비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표준 플레이트 부문의 매출비중이 70%에 달하나 그 비중은 소폭 감소 추세에 있다.

■ 2019년 내수 매출 비중이 97%를 상회하며 전체 매출변동을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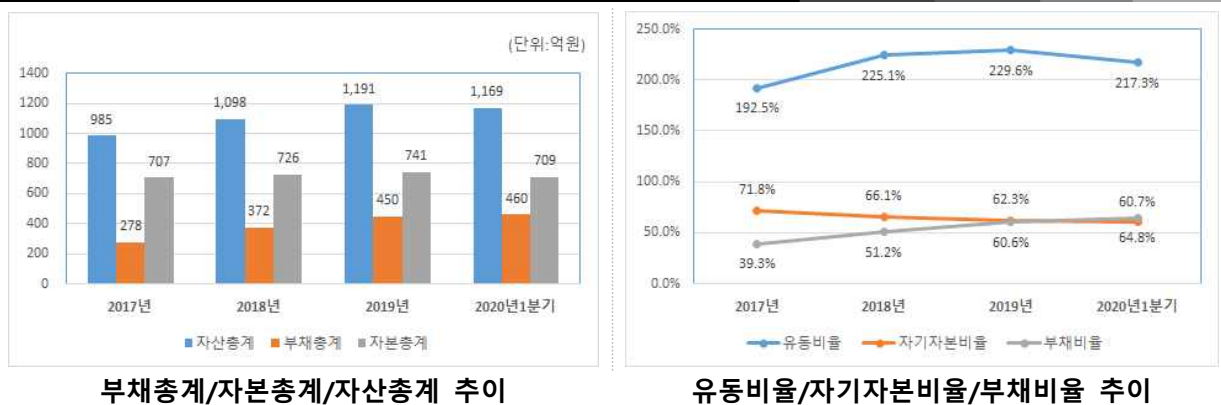
동사는 표준 플레이트 부문, 정밀 가공설비 부문의 제조/판매를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내수매출이 전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 2019년 내수매출은 507억 원(총매출의 97.9%)로 수출매출 11억 원(총매출의 2.1%)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 동사 연간 및 1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분기보고서(2020)

그림 6. 동사 연간 및 1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분기보고서(2020)



■ 표준플레이트, 금형플레이트 수주감소가 전체 매출감소 주도

동사는 각종 산업기계 및 설비 등의 부품소재로 사용되는 표준플레이트와 소재 가공용 정밀가공 설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산업의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매출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 기준 매출은 518억원으로, 표준플레이트 등이 353억 원(전체 매출의 68.1%)으로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7.9% 감소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동사의 매출액은 2017년 570억 원(+14.5% YoY)에서 2018년 562억 원(-1.3% YoY), 2019년 518억 원(-7.9% YoY)을 기록하는 등 2019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의 매출원가율은 2018년 79.4%, 2019년 78.5%로 매출 감소와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소폭 하락하였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18년 7.2%, 2019년 5.8%를 기록하여 산업평균 대비 보통 수준의 영업수익성을 지속하였다. 동 기간 영업이익은 41억원, 30억원으로 매출 감소에 따라 감소하였다. 또한, 매출액순이익률이 2018년 5.4%, 2019년 4.6%를 기록하여 산업평균 대비 보통 수준의 수익구조가 유지되었다.

■ 2020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및 수익성 하락

2020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125원을 기록하며 매출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 5.6%, 매출액순이익률 2.3%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저조한 수준의 수익성이 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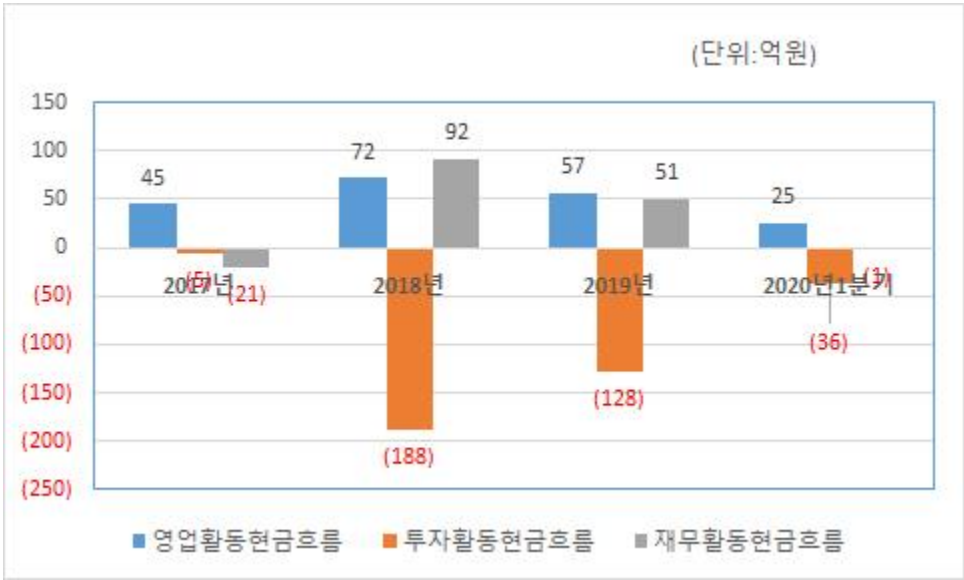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64.8%, 자기자본비율 60.7%, 유동비율 217.3%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 영업활동현금유입 대비 큰 순투자활동 현금유출로 현금성 자산 감소

2019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비현금비용 등으로 인해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을 27억 원이상 크게 상회하는 57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취득 등 투자활동으로 인한 127억 원의 순현금유출로 인해 전년 대비 19억 원의 현금감소를 시현하였다.



그림 7.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1분기보고서(2020)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B2B 통합수주시스템 오픈 및 금형용 플레이트 사업 시동

동사는 자동화 설비 투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B2B 통합수주시스템 웹사이트를 오픈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자회사인 신진에스코와 협력을 통해 몰드베이스 제작용 금형 플레이트 사업에 본격 진출하였다.

■ B2B 통합수주시스템 오픈

자동화 설비 투자를 통해 업계 최초 고객의 주문 즉시 가공, 배송 등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B2B 통합수주시스템을 개발하여 ‘바로신진’이라는 웹사이트(<http://b2b.shinjin-sm.co.kr>)를 오픈하였다. 기존 전화, 팩스로 이뤄지던 수주, 발주 시스템을 온라인,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제품주문, 가격조회, 배송정보 등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고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표 22. 온라인 주문 시스템 ‘바로신진’



*출처: 1분기보고서(2020)

■ 신규 사업 추진

동사는 대형 규격 철판 절단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신진에스코와 협력하여 몰드베이스 제작용 금형 플레이트 사업에 본격 진출하였다. 이를 위해 대형 로봇 자동화 밀링머신을 자체적으로 제조하여 공장에 배치하였으며, S45C 소재의 표준 타입 전 규격의 금형용 플레이트 생산 체계를 구축하였다. 금형용 플레이트의 특징을 세트 단위 및 판 단위 발주 모두 가능하고, 특히 로봇 자동 생산에 의한 균일한 치수 공차 및 우수한 품질의 금형용 플레이트 대량생산할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 납기 대응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판매 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23. 신진에스코 현황



신진에스코 매출액·영업손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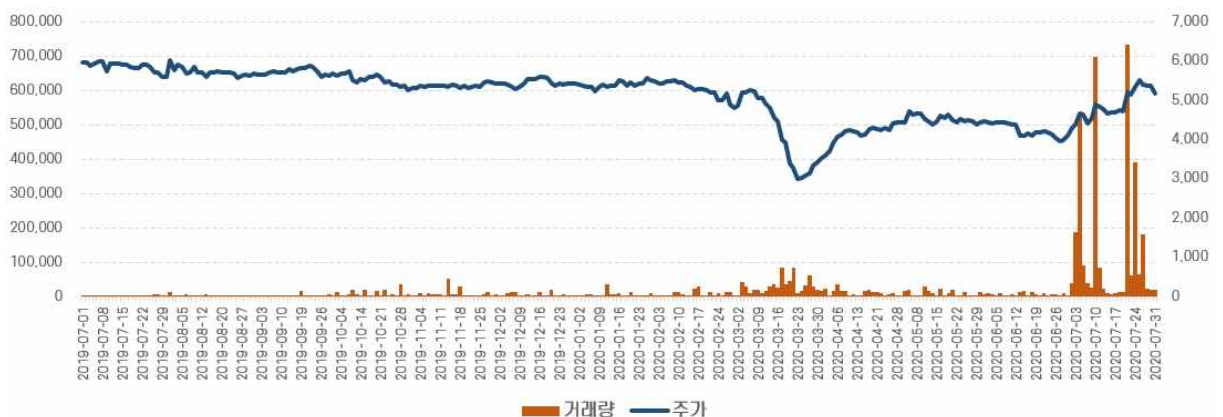
*출처: 1분기보고서(2020)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최근 6개월 내 발간된 보고서 없음

시장 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0.07.)